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에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수십억의 인간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뿐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들을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부분도, 실제적인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는 잊어버리시거나 틀리거나 변하지도 않으시고,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한 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 측량할 수 없다고 찬양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세오스(Theos)라 한다. 이 말은 Theisthai(세이스타이)에서 온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all-seeing One)이라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全知)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면 시각장애를 갖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도 맹인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의 눈도 속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완전히 결과 속을, 행동과 마음을 계속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술과 재능을 보고 해석하려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조성되기 전, 그 마음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읽는 분은 하나님 외엔 아무도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알고 계신다. 약점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는 다르다. 누가 열쇠 구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 하고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알려저서는 안 될 비밀도,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니체는 살신(殺神)을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미쳐 죽었다. 1984년 G.Orwell의 미래 세계를 내다 본 Big Brother의 진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할 것 같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는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사람의 오해와 모함으로 울분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의히 아셨나이다.” 한 시인처럼 어차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두려워 말고, 그 앞에 감추인 죄를 회개하고, 그만 의지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질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이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602호] 2018년 7월 14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Pollux Kiplagat]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hew 6:25-3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omorrow's Worries For Itself”)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현,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택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격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낙심하지 말라 ”

■ 살후 3:13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라 합니다. 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지만 유일하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는 안드로포스, 사람뿐입니다. 참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래를 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계신 천상을 바라봅니다. 본문의 ‘낙심하지 말라’ 는 헬라어로 ‘매 에그크케세테’ 라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 어명 없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매 에그크케세테” , 낙심하여 지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구원의 징표요 열매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유지는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2. **말씀을 먹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고 입에는 씹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화시키면 배에서 달고 힘이 됩니다. 말씀을 먹다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고 쓰지만 결국은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만들어 줍니다.
3. **직분을 수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칭찬이 줄어들고, 비난이 증폭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불법한 일들 때문에, 억압 때문에, 열토당토않은 모함 때문에, 영타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도와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선한 마음과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4.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보면 아무리 소리치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장에 앞에서 기도의 문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의의 심판자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며, 길을 내시는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기와 위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5. **환난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엡 3:13). 환난은 영광의 과정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6.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히12:5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 12:5). 징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시간을 넘기면 축복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7. **기도하다가 중도에 낙심하지 말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원한에 쌓인 과부의 한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계속 찾아와서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과부가 번거롭게도 괴롭게 결국에는 불의한 할머며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고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8. **늘이기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4:16). 진실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늘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연류관입니다.

맺는 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길변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며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목 도	다 함 께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성 시 시 33:6-8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홍일성 장로	찬 송 23(23)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기 도	이준호 집사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7:1-2...		인 도 자	성 경 암 7:1-8: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윤 목사
* 찬 송 Hymn2(6).....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설 교 ... "내게 보인 것이 아담과 노아" ...	설 교 자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2(시 143)...		다 함 께	* 찬 송 425(21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주기도송	다 함 께
찬 송 Hymn212(34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5:1-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기 도	박현영 권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성 경 삼상 25:1-38	인 도 자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전재홍 목사	설 교 ... "주의 영광의 해를 위하여 주심" ...	설 교 자
* 찬 송 Hymn175(16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원, 박수강, 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원, 박수강, 김복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살후 3: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2. 살롬 권사회 월례회 / 21일(주) 3부예배 후 101호
3. 교구간사모임 / 21일(주) 오후 3시30분 104호
4. 호산나 찬양대 야외예배 / 24일(수) 한탄강 주상절리(오전 9시30분 교회 출발)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세례식 실시 / 10월 세례식이 금일 21일(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이종욱(진검)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장 레 1. 故 최풍자 권사(9교구 백승경 권사의 모친, 박동우 집사의 장모) / 15일(월) 별세, 18일(목)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18명	249명	216명	1,283명	131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1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14일	헌 금	22,534,900	
	퇴직금		5,722,500
	찬양운영비		34,000
	교회학교운영비		1,175,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298,120
	차량유지비		1,203,140
	소모품비		885,200
	특별예배비		637,500
	식당운영비		1,648,040
	합 계	22,534,900	11,853,500